

The Keyword I.

'Suddenly' (홀연히, 갑자기)

1. Key word

* 사전적 정의

- (암호해독 등을 할 때) 해독의 열쇠가 되는 어(語), 키워드.
- (작품의 주제 등을 나타내는) 중요[주요]어
-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어, 표제어.

인생을 악보로 생각해보자. 악보에 그려질 음표 하나 하나가 키워드이다. 그래서 아무 멜로디나 그릴 수 없다. 작곡자가 음표 하나를 그릴 때마다 고민을 한다. 음표 하나가 곡 전체를 이야기 하는 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 하나에 곡 전체가 반영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키워드의 사전적 정의처럼 내 인생의 악보에 채워지고 있는 중요어, 해독의 열쇠가 되는 음표는 무엇인가? 그 음표가 모여 인생의 노래를 만들게 된다.

2. 다윗의 열쇠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키워드 자체에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야 할 시,공간을 의미한다. 세상은 '트랜드'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키워드는 '열쇠'와 같다. 누가 어떤 열쇠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예언적'요소가 있다.

[이사야 22:22]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보라.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다. 그것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권세의 열쇠이다. 다윗에게 있던 이 열쇠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다. 땅에서 묶고 푸는대로 하늘에서도 묶고 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열쇠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키워드는 중요하다. 그 시대에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하나님께서도 올리신다. 모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출애굽' 이라는 단어이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나안 정복'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슈로 올리시는 키워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악보에 채워질 음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 민족이 찾아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중요하다.

3. 'Suddenly' (홀연히, 갑자기)

[사도행전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홀연히, 갑자기' 라는 키워드이다. 시대를 보니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추수를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살고있는 곳만 보면 안 된다.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교에 관련된 주제가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내 틀에서 (경험, 지식)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 중동을 보니 그렇다. 아시아를 보니 그렇다. 분명히 변했다. 복음의 불모지라 불렸던 곳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 한 명의 영혼도 추수하기 힘들었던 곳에 추수가 있다. 중동의 문이 열리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가고 있다. 즉,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고수했던 형식과 방법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힘이 없다는 것이다. 동력을 잃었다. 진보와 확장과 전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8처럼 전진한다. 확장된다. 그런데 확장된 교회는 유지에 급급하다. 아니,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때에 전혀 다른 작은 움직임들이 눈에 보인다.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컨셉의 예배들과 공동체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 주목해야 한다. 작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영향력을 일으키는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이 붙잡고 있는 키워드는 지금까지의 키워드와 다르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예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와 다른 영혼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예수님을 통해 열게 하셨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복음서의 컨셉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도시가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속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시대)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2:2절에 그 키워드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1:8절의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

오순절이 이르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갑자기, 홀연히' 임하셨다. 이 '홀연히'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한 번의 순간이 모든 것을 변하게 했다. 그 후로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삼천명, 오천명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4. 영향력

'홀연히' 임한 성령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 때부터 엄청난 추수가 시작되었다.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도시 전체가 (에베소 등)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다. 그 당시 로마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고, 더 나아가 두려움의 존재들이 되었다.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다. 단 한 번의 '순간'이다. 놀라운 일이다. 제자들이 단 한번의 '터치'로 병을 고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다윗을 보라. 소년 다윗이 일어나니 그 때까지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기소침과,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한 번에 변화가 되었다. 한 순간이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한 순간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5G가 상용화 되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세상도 말하고 있다. 즉, 우리의 삶이 사고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번 터치하시면 인생이 갑자기 변화된다. 이 시대 '홀연히, 갑자기'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5. 절대믿음

따라서 믿음이 필요하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한 순간'에 치유 받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었다. 내 모든 능력이 막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과 수렁에서 나를 한 번에 건져올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 순간에 풍량이 잠잠해진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믿음'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악보를 가장 아름답게 채우실 작곡가 예수님의 음표를 기대해야 한다.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홀연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시대는 달랐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6. 심는 자에게 열매가 열린다.

그러므로 꾸준히 심어야 한다. 열매가 열리는 순간은 계절이 바뀌는 그 순간 갑자기 열린다. 심으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하실 것이다. 꿈이 있는가? 그 꿈을 위해 심으라. 재정과, 시간과,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심으라. 그러면 홀연히 갑자기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